

제 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일시 2022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YWCA 4층 강당(유튜브 생중계)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시상식 순서	사회	류지아 EBS 성우
	인사말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상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소개
	경과보고 심사보고	김은주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장
	심사 소감	안예은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청년심사위원
	수상작 소개 시상	

수상작	대상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최우수상	ENA / (주)에이스토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수상(성평등 부문)	한국일보 PRAN × 허스토리 여자를 돕는 여자들
	우수상(생명 부문)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 2050, 서울>
	우수상(정의·평화 부문)	MBC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우수상(청년 부문)	MBC충북 어스온어스(Us On Earth)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인사말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에 참여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정의·평화·생명의 가치가 담긴 좋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수상팀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에 애써 주신 심사위원님들, 특별히 청년세대의 관점으로 좋은 콘텐츠 선정을 위해 애써 주신 청년심사위원님들, YWCA청중투표단으로 2차 영상심사에 참여하신 분들, 다양한 작품을 추천해 주신 제작자와 YWCA회원들과 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상식에 오신 축하객분들, 현재 유튜브에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922년 창립 이래 '정의, 평화, 생명' 사회를 위해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온 한국YWCA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TV모니터운동을 계승하여 1996년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구,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을 제정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재작년부터는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TV프로그램뿐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여 좋은 콘텐츠를 선정하고자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의 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YWCA는 지난 26년간 한결같이 '정의, 평화, 생명' 가치를 잘 드러낸 작품을 선정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편에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넘치도록 하고, 또 아파하는 지구, 상처입은 생명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기승 벽찬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기 힘든 위드 코로나 시대, 희망을 꿈꾸며 더불어 사는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의, 평화, 생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제작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대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구,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한국YWCA연합회는 1996년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 제작진들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자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YWCA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잘 구현한 160여 편의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격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경과보고



김은주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장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은 그동안 160여 편의 수상작을 배출하며 제작자들에게는 격려를, 시청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0월 7일부터 홈페이지와 추천공문을 통한 공고를 시작해 미디어 방송계, YWCA 회원, 청년 회원, 일반 시민 등에서 후보작 추천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방영된 TV 프로그램과 뉴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성평등과 생명, 정의·평화, 청년 부문의 작품을 추천받았습니다.

11월 21일(월) 추천 마감 결과 성평등 부문 15편, 생명 부문 11편, 정의·평화 부문 12편, 청년 부문 9편 총 47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정성껏 추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서에서 각 부문별로 4편씩 총 16편을 선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차 영상 심사에서 'YWCA 청중투표단'의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심사위원들의 2차 영상심사를 통해 오늘의 수상작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확정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1차 심사 선정작 (최종 수상작 제외)

성평등	KBS 시사기획 창 '너를 사랑해'
	MBC PD수첩 젠더갈등과 여성가족부
생명	TBS 빨간 사과의 죽음
	EBS 다큐프리미엄 아동인권 6부작 '어린 인권'
정의·평화	포항MBC 새어나온 비밀 Black Water
	KBS <시사멘터리 이슈 추적> 사과도 보상도 없었다
청년	CBS 보도특집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교회, 난민을 품다'
	KBS 시사기획 창 MZ, 회사를 떠나다
청년	KBS 시사기획 창 2022 인구 이동 보고서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EBS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그동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구정혜, 김수아, 김은경, 김선영, 이택광, 이하나, 정덕현 심사위원과 김예지, 안예은, 이예림 청년심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좋은 미디어 콘텐츠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심사 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례 없이 변화된 방송환경 속에 드라마 부문에서와 시사-예능, 예능-다큐 등 분야를 통합한 좋은 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방영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모든 제작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좋은 미디어콘텐츠들이 후보작으로 많이 추천되어 최종 수상 결정을 놓고 심사위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YWCA청중투표단의 운영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한 심사를 할 수 있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의 의미와 목표를 새삼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작을 추천하고, 본상 심사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최종적으로 올라온 작품들은 미디어콘텐츠상의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매체 특성과 세대별 수용, 주제 의식과 참신성, 작품성 등을 감안했습니다.

다음은 각 선정작을 최종 결정한 심사평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상은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1부~3부작입니다. 현대인들이 백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여성들과 만나는 극적 형식을 도입해 한국 근대화 시기,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내었던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여성백년사>는 남성이 써내려간 역사 속에 묻혀진 여성들을 발굴해 주제적으로 실아가고자 했던 여성들이 어떻게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억압 받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자료와 재현을 통해 충실히 그려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100년 이후 이러한 성차별적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과제도 던져줍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 수상작은 ENA / (주)에이스토리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장애인, 성소수자, 경제권이 없는 노년여성, 북한이탈주민, 해고노동자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법적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하여 소수자 이슈를 보편적인 호소력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기록적인 시청률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는 공론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류와 정상성의 기반 위에 그려졌던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수상은 각각 성평등 부문, 생명 부문, 정의·평화 부문, 청년 부문으로 선정작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성평등 부문은 한국일보의 영상채널인 '프란'과 한국일보의 젠더 뉴스레터 '허스토리'의 <여자를 돕는 여자들>입니다. 정치·대중 문화·창업·커리어·과학·미투운동 등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그 세계에 균열을 내고 자신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 준 개척자 여성들을 조명하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여적여' 프레임이 아니라 여성들 간의 연대를 드러내기 위한 기획의도가 삶에서 기억하는 여성 연대 경험을 통해 설명되어 시청자의 공감도를 높이고, 가족 내 삶과 관련된 일화들이 여성의 전문성과 충돌하는 지점도 다루면서 여성의 삶의 복합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 여성자신의 이야기를 여성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생명 부문은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 2050, 서울>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과 경각심을 우리에게 친숙한 비벌디의

바이올린협주곡 '사계를 통해 보여주는 기후변화 보고서'입니다. 음악으로 기후재앙인 현실을 느낄 수 있게 구성한 점과 음악가와 기후전문가들이 만나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친숙한 음악과 친절한 나레이션 등 탄탄한 구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정의·평화 부문으로 MBC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를 선정하였습니다.

분단 후 최초로 북한 철도의 대동맥을 촬영하는 등 방송 최초로 북한 철도 여행을 흥미롭게 소개하였습니다. 북한의 11개 기차역과 10개의 도시, 그리고 여행지를 1부 '동해 바다열차', 2부 '평양 국제열차'에 담았습니다.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를 통해 기차역과 도시, 명승지, 음식 등을 간접 체험하고 삶의 단편들을 느낄 수 있게 구성하였고, 남으로는 남한과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가 이어지는 날을 그리며 통일한국을 꿈꾸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부문은 MBC충북의 <어스온어스(Us On Earth)>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장 예능프로그램으로 사회규범이 정의하는 청년들이 아닌, 다양한 개성을 지닌 세 청년이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구와 다른 생명과의 공존을 꿈꾸고 그 가능성을 실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세 청년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둔감한 기성세대에게 그 변화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진지한 여행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 우정, 환대로 연결되는 지구 세대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장을 마련한 콘텐츠입니다.

이상으로 심사평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시대와 이 사회에 대한 통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유의미한 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은주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원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김수아	서울대 언론학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미디어비평가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 문화비평가
	이하나	여성신문 편집국장, 기자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김예지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청년심사위원
	안예은	(사)서울YWCA 청년활동가(성평등 모니터링 담당), 청년심사위원
	이예림	(사)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기획국장, 청년심사위원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심사소감



안예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청년심사위원,
서울YWCA성평등 모니터링팀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청년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작품들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진지한 작품들이 2022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EBS <여성백년사: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는 100년 전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도 진취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현재에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편의 시리즈를 통해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에게 더욱 뜻깊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사회문제와 이슈에 대한 사회적 담론장을 형성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설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중성을 지닌 좋은 미디어 콘텐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선명히 보여 준 의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두 작품은 대상과 우수상을 두고 최종 심사회의에서 팽팽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장애 인권과 성소수자, 이종의 억압에 놓인 여성노동자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드라마 중 각각의 에피소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논의 주제들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장애가 능력주의적 양태로 표현되었다는 점과 장르적 한계로 인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고스란히 담아내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긴 논의 끝에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의 역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충실히 담아낸 <여성 백년사>에 더 많은 심사위원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평등 부문상의 프란(PRAN) X 허스토리 <여자를 돕는 여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연대가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리즈는 시의성과 확장성을 모두 겸비하였기에,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평화 부문의 MBC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는 긴장과 갈등으로 묘사되는 북한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를 여행이라는 테마를 통해 새롭게 풀어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끊어진 남북 철도가 다시 이어지는 상상은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위기 상황에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함의를 남겼습니다.

생명 부문은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2050, 서울>을 선정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2050년 서울의 기후를 예측해 편곡한 음악은 너무나 암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껏 기후 위기를 다뤘던 방식과 달리 신선한 시도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들에게 '사계2050'이 비극적인 음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문의 MBC총복의 <어스온어스(Us On Earth)>는 해당 부문에서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청년들이 기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청년들이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성장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응모작과 수상작 모든 제작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을 통해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심사에 참여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나누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뜻깊은 미디어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한국일보 pran:x 히스토리 히스토리 <여자를 돕는 여자들>



제작 이수연 박고은
기획, 인터뷰 이혜미

‘여자의 적은 여자?’ 편견이 더 이상 개인의 성취와 성장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일보의 ‘여자를 돕는 여자들’ 프로젝트는 기획됐다.

한국일보의 젠더 뉴스레터 ‘히스팩티브(당시 히스토리)’는 앞장서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균열을 내고 영토를 넓힘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 준 개척자 여성들을 조명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다. 정치·대중 문화·창업·커리어·과학·미투 등 분야에서 활약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12명 여성의 이야기는 한국일보 영상채널 ‘프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저널리즘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응원하고 연결되는 감각을 공유하기를 바랐다. 이 같은 취지에서 진행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는 1,064만 원의 후원금(346명 후원자)이 모이는 등 독자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 2050, 서울>



책임프로듀서 김학재
연출 성명주 강민아 안서희
작가 박소희 김유진

사계절이 무너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사계절의 붕괴는 인류 문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뜨거워진 지구, 미래의 사계절은 어떤 모습일까.

글로벌 프로젝트 ‘불확실한 세계’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2050, 서울>은 음표로 쓴 기후변화 보고서다. 거장 비발디 명곡 ‘사계’는 산업화 이전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아낸 작품이다. 누구나 아는 클래식 음악 ‘사계’에 AI 편곡 기술을 적용해 기후위기의 현실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음악이 들려준 ‘2050년 서울의 사계’는 충격과 혼돈 그 자체였다. 2022년 8월, 우리는 이미 수도권 폭우 사태를 통해 한반도가 직면한 기후위기 현실을 목격했다. 재난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공격한다.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 이상 기후 현상은 끊임없이 인류 문명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아낼 거라 믿는다. 2050년 한반도에 망가진 ‘사계’의 불협화음이 울려 퍼지지 않기를 바라며.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MBC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책임 프로듀서 장형원
연출 김명환, 송걸
작가 김정연, 김가현
조연출 진정모

고종의 특명을 받은 이준 선생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한 것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으로 간 것도 모두 철도였다. 그러나, 분단 후 철책에 막혀 경의선과 동해선이 멈춰 섰고, 우리는 더 이상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유럽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남한은 ‘섬’이 되었다.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는 분단 후 최초로 북한 철도의 대동맥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방송 최초로 북한 철도 여행을 가감없이 흥미롭게 소개하였으며, 남북철도 연결의 의미를 상기하고 대륙과 유럽으로 향하는 희망의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11개 기차역과 10개의 도시, 그리고 여행지를 1부 ‘동해 바다열차’, 2부 ‘평양 국제열차’에 담았다.



MBC 충북 <어스온어스>(Us On Earth)



책임프로듀서 오규익
연출 강창목 김우림
작가 김어흥
촬영 we.take
동시녹음 팀하모니

지구세대(earth generation)란 ‘지구와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각하는 세대’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들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었음을 인식하고 관계와 존중, 평등과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어스온어스>는 강금과 자율의 박탈, 친구와 학교의 상실, 결핍과 단절을 경험한 코로나 세대가 지구별 여행자가 되어 지구 세대로 변화해 가며 내일의 희망을 일구는 여정을 담는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는 세 청년(백팩, 경현, 해원)이 국내와 해외를 여행하며 세상을 공부한다. 여행 속에서 각자의 버킷리스트 채워가며, 코로나와 재난의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방식을 익히는 청년들. 개개인의 고민은 결국 기후위기, 난민, 공장식 축산과 같은 전지구적 과제와 맞닿아 있었다.

세 청년의 진지한 여행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 우정, 환대로 연결되는 지구세대의 가치를 그려낸다.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ENA (주)에이스토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 이상백
연출 유인식
극본 문지원
출연진 박은빈, 강태오, 강기영 외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우영우의 대형 로펌생존기를 그린다.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의 편견, 부조리에 맞서 나가는 우영우의 도전이 따뜻하고 유쾌하게 펼쳐진다. 사람들에게 당연한 세상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에게는 낯설고 어렵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금지조항'은 가끔 그를 움츠러들게도 한다. 하지만 우영우의 엉뚱하고 솔직한 모습은 놀라움을 주기도 하고,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우영우의 성장이 감동을 넘어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특히, 의뢰인의 사연에 다가가는 우영우식 접근법 또한 색다른 재미와 공감을 선사한다.



EBS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책임 프로듀서	박성웅	글·구성	임정화
연출	이혜진	취재	공주연
촬영	임형은	편집	백봄 이종원
조연출	박보영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는 100년 전 여성들의 삶이 현재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에 귀기울이고, 동시에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지 모르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한국 여성 최초로 남성 중심의 문학계에 등단한 작가 김명순, 단발로 머리를 자른 최초의 여성 강항란, '데파트 걸'로 일했던 독립운동가 송계월, 동양 최초의 여성 택시기사 이정옥, 최초의 미용사 오엽주 등 100년 전 여성들의 삶을 통해 당시 여성들이 마주했던 사회를 들여다본다.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100년 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해 묻는다. 이를 위해 현재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기록한다.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는 성폭력문제, 성별 임금 격차, 유리 천장 등의 문제를 100년 전 과거와 현재, 그리고 100년 후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룸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역대 수상작

연도	대상·특별상	여성	평화	환경
제1회 (1996)	여성 (해당작 없음) 평화 MBC <PD수첩-고엽제> 환경 MBC <PD수첩-산불 현장을 가다>	옴스상 (해당작 없음) 버금상 MBC <PD수첩-승진 성차별>	옴스상 KBS <체험, 삶의 현장> 버금상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해와인양아, 진부모를 찾습니다>	옴스상 SBS <8시 뉴스-시화호 3억 톤 폐수 방류> 버금상 EBS <하나뿐인 지구-죽음의 적색띠>
제2회 (1997)	대상 KBS <일요 스페셜-생물자원시대, 종이 유출되고 있다>	옴스상 MBC <PD수첩-함평여고생 사건, 추악한 범죄 1, 2편> 버금상 MBC <기획특집드라마-말의선택>	옴스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잊혀진 죽음의 섬, 유부도 정산질원자수용소> 버금상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경규가 간다>	옴스상 EBS <특집 다큐멘터리-하늘 다람쥐의 숲> 버금상 대진방송 <환경특집-소리 없는 보복, 광산>
제3회 (1998)	대상 (해당작 없음)	옴스상 (해당작 없음) 버금상 MBC <PD수첩-벼랑에 선 여자들>	옴스상 KBS <개혁신보-책임 지지 않는 권력, 언론> 버금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국군포로 정무원> 인찬방송 <청소년 다큐멘터리-내일은 태양>	옴스상 SBS <환경특집-불가사의의 반란> 버금상 KBS <창원방송 (우포늪을 살립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위기! 비경의 동강>
제4회 (1999)	대상 KBS2 <학교1>	옴스상 KBS1 <20세기 한국사-성으로부터 해방> 버금상 KBS1 <일요스페셜-가족 미래, 여성 어디로 가는가> YTN <8.15특집-이대로 죽을 순 없다>	옴스상 인천방송 <기억의 저편-치매 샘터 마을> 버금상 전주MBC <푸른 꿈을 일구는 사람들>	옴스상 KBS1 <환경 스페셜> 버금상 제주KBS <해양탐사-제주 해안 253km>
제5회 (2000)	대상 KBS2 <다큐미니시리즈-인간극장> 특별상 (EBS리포트-북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옴스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여성 인권 10년> 버금상 MBC <PD수첩-여자는 태어나지도 말라?>	옴스상 KBS <사청자칼럼-우리 사는 세상> 버금상 전주방송 <창사3주년 특집-7일 간의 사랑>	옴스상 대진MBC <신두리사구>
제6회 (2001)	대상 KBS1 <한민족 리포트> 특별상 KBS1 <TV, 책을 말하다>	옴스상 MBC <베스트극장-늑대사냥> 버금상 iTV <프로인사이드-김씨 아버지의 최씨 딸>	옴스상 MBC <보도연행 I - 잊혀진 대학살, 보도연행 II - 산 자와 죽은 자> 버금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보사자 가족의 눈물> CJB <휴먼기획-사랑, 삶>	옴스상 SBS <물은 생명이다> 버금상 KBS창원 <특집3회 연속기획-숨쉬는 땅> O채널 <자연다큐멘터리-두만강>
제7회 (2002)	대상 KBS <9시 뉴스-신음하는 백두대간시리즈> 특별상 KBS광주 <함께 사는 사회-도전! 저기 지라산이 보인다>	옴스상 MBC <난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버금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족의 조건, 감추고 싶은 성>	옴스상 대구MBC <울타리 없는 학교, 질라라비> 버금상 PSB <창사특집 <황혼의 고백>>	옴스상 iTV <2002 세계환경기업 보고서> 버금상 KBS청주 <환경스페셜-최초보고 송사리>
제8회 (2003)	대상 MBC <인터뷰 다큐멘터리-가족> 특별상 MBC <심야스페셜-아주 특별한 소리여행> iTV <사랑 릴레이-함께 사는 세상>	옴스상 KBS <노란 손수건> 버금상 iTV <2003 여자들의 선택 2부작>	옴스상 KBS <일요 스페셜-환자가 주인인 병원, 1만원의 건강비결> 버금상 중앙방송 <논픽션 커버스토리-어느 탈북자들의 자본주의 실험>	옴스상 대진MBC <창사특집 고향 2부작-아이들의 밥상 고향은 없다, 고향의 꿈 아이들이 만든다> 버금상 KBS강릉 <특별기획-태풍 루사 그후 1년, 남대전은 숨쉬고 싶다>
제9회 (2004)	대상 EBS <도전! 죽마고우> 특별상 KBS1 <도전! 골든벨>	옴스상 KBS <한국 사회를 말한다-출산파업>	옴스상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신의 아들과의 전쟁>	옴스상 SBS <신년 대기확-환경의 역습>
제10회 (2005)	대상 SBS <SBS스페셜-나는 가요-도쿄, 제2학교의 여름>	MBC <군세어라 금순아>	목포MBC <특별 다큐멘터리-삼>	KBS <KBS스페셜-21세기 농업의 미래>

연도	대상·특별상	여성	평화	환경
제11회 (2006)	대상 KBS1 <러브인아시아> 특별상 MBC <불만제로>	SBS <추석특집드라마-깜근이 엄마>	EBS <지식채널 e>	MBC <MBC스페셜-내아이의 밥상>
제12회 (2008)	대상 KNIN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청소년> 특별상 EBS <인간탐구 대기화-아이의 사생활>	드라마 SBS 주말극장 <황금신부> 시사 KBS <시사기획 썸-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교양 <생방송투데이-매, 매, 엄마>	KBS <KBS스페셜-세상을 바꾸는 0.05의 힘>	춘천MBC <흙의 반란, 물을 삼키다>
제13회 (2009)	대상 KBS대전 <지구외해 특별기획-호모 오일리쿠스> 특별상 SBS <SBS스페셜-아빠 나라를 떠난 아이들>	드라마 KBS2 <엄마가 뽀뽀했다> 시사 MBC <PD수첩-내 아기를 돌려주세요> 교양 채널동아 <싱글맘 복약환의 엄마에서 미안해>	SBS <똥, 땅을 살리다>	OBS <도시재생, 삶을 담은 공간 만들기>
제14회 (2010)	대상 CBS 블로그다큐 <웅산, 아벨의 죽음>	드라마 SBS <천관한 유산> 시사 울산방송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교양 MBC <우한도전-권투 편, 추억이 온다>	KBS <천상의 수업-용재오닐과 낙동 아이들>	EBS <지식채널 e-칩코의 여인들 외>
제15회 (2011)	대상 MBC <설특집 <세사봉 콘서트>> 특별상 SBS <TV동물농장-당신이 입는 모피의 불편한 진실> 청년부문 OBS <멜로다큐 가족-총각엄마와 7형제의 대한민국 전국 여행>	드라마 MBC <성균관 스캔들> 시사교양 MBC <휴먼다큐 그날-다섯살 검은 한국인 지현이, 아빠 처음 만나는 날>	EBS <다문화드라마-마주보며 웃어>	KBS부산 <환경스페셜-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전자쓰레기>

연도	대상·특별상	여성	평화	청년·청소년
제16회 (2012)	대상 MBC <휴먼다큐 사랑> 특별상 전주방송 <피우자 민들레-종일씨의 행복의>	KBS <아침TV소셜 북학누나>	울산방송 <시사기획 인사이드-전원공급 중단시태, 침묵의 원전>	SBS <SBS스페셜> 2부작 '가적의 하모니'

연도	대상·특별상	여성	생명	평화	청년·청소년
제17회 (2013)	대상 SBS 대기확 <최후의 제국> 특별상 강원민방 <DMZ 스토리>	KBS <시사기획 창> 임신하면 안 되나요/수요집회 20년, 끝나지 않은 전쟁	MBC <PD수첩> 생명존중 기획 2부작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KBS 월화미니시리즈 <학교 2013>
제18회 (2014)	대상 SBS <SBS스페셜> 3부작 <부모vs학부모> 특별상 EBS <다큐프라임 6부작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제주MBC <경력단절 여성 취업기 <그녀가 돌아왔다>>	전주MBC <육식의 반란2-분노사슬>	KBS <시사기획 창> 갈 곳 없는 '해폐기물' 해법 없나?	KBS 파노라마 2부작 <21세기 교육혁명, 미래 교실을 찾아서>

연도	대상	특별상	여성	평화
제19회 (2015)	대상 JTBC <보도특집 '여객선 세월호 침사 보도'>	KBS 청소년기획 '세상 끝의 집' 광주MBC <창사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백년의 유산-여성교육자 김필례'>	MBC <드라마 <마미>>	KBS <시사기획 창> 일본산 먹어도 되나요

연도	대상	특별상	성평등	생명·평화
제20회 (2016)	대상 EBS <다큐프라임>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	t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SBS <8뉴스>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보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2부작

연도	대상	특별상	성평등	생명·평화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제21회 (2017)	M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EBS <하나뿐인 지구> '이상한 나라의 죽음-기습기 살균제 대참사'	SBS <SBS스페셜> '진혹 동화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	OBS <창사9주년 특별기획> '세월호 그 후, 트라우마는 누구의 것인가'	JTBC <JTBC 뉴스룸>
제22회 (201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대전MBC 특별기획 <검은 재앙 10년, 절망에서 건진 희망>	KBS <거리의 만찬> '그녀들은 용감했다'	KBS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JTBC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M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
제23회 (2019)	t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EBS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제8부 '지금, 여기 유일한' 편>	KBS KBS스페셜 <2018 여성, 거리에서 외치다>	EBS <배워서 남줄림-자해하기 싫어요>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뱅커>	

연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성평등	우수상생명	우수상정의 평화	우수상청년
제24회 (2020)	CBS유튜브 <씨리얼>	ubc 울산방송 <필환경시대의 지구수다>	SBS스페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그녀의 이름은>	MBC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휴머니얼>	KBS <다큐 인사이트> 아이들의 학교	MN <유 퀴즈 온 더 블록> 미생 특집

연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성평등	우수상생명	우수상정의 평화	우수상청년
제24회 (2020)	CBS유튜브 <씨리얼>	ubc 울산방송 <필환경시대의 지구수다>	SBS스페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그녀의 이름은>	MBC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휴머니얼>	KBS <다큐 인사이트> 아이들의 학교	MN <유 퀴즈 온 더 블록> 미생 특집
제25회 (2021)	한겨레 젠더미디어 슬랩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	TBS <신박한 벵커> CODE RED 인류 멸종의 시그널	KBS 다큐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국가대표>	SBS 스타스뉴스 <가자, 네이처 돌이>	한국탐사저널리즘 센터 뉴스파타 <나의 참혹한 대한민국: 범죄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	MBC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

한국YWCA

한국YWCA는 세계 109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세계YWCA의 회원국이며, 1922년 창립해 올해 100주년을 맞은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이다.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운동, 탈핵기후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 운동, 돌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국 52개 지역YWCA에서 8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여성폭력 예방과 치유, 청소년 인권 증진, 청소년 금융·직업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복지관, 여성폭력방지관련시설, 청소년 시설, 사회적기업 등 160여 개 부속시설에서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YWCA 연합회

(우)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3(명동1가 1-3)

전화 02-774-9702~7. 이메일 koreaywca@ywca.or.kr

홈페이지 www.ywca.or.kr